

SPORTS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한국 리커브, 광주세계선수권 ‘4종목 석권’ 쏟아

남자 단체전 4강서 일본 5-4 제압... 여자, 인도와 ‘동’ 결정전  
혼성 결승 진출·개인전 예선 1위... 10일 5·18무대에서 단체 결승

한국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 단체·혼성 단체전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남아 개인전 예선도 모두 1위로 통과, 여자 단체전을 제외한 4개 종목 우승을 향한 청신호를 켰다.

‘파리올림픽 3관왕’ 김우진(청주시청)·김제덕(예천군청)·이우석(코오롱)이 팀을 이룬 한국 리커브 대표팀은 9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남자 단체전 4강전에서 스페인 끝에 일본을 5-4(57-56 55-58 54-58 57-54 <30-28>)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예선에서 2062점을 쏜 1위로 통과한 남자 대표팀은 16강에서 튀르키예를 6-2(56-58 57-56 56-55 58-56), 8강에서 프랑스를 5-4(57-57 57-56 55-57 58-58 <29-28>)로 차례로 제압했다.

이어 4강전에서는 4세트까지 일본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4-4 균형을 이뤘고, 슛오프에 돌입했다. 이어 슛오프에서 모든 선수가 10점을 쏘면서 한 일전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10일 5·18민주광장에서 미국과 금메달 경쟁을 이어간다.

미국 대표팀엔 비(非) 한국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공사이자 현 세계랭킹 1위인 브레이디 엘리슨이 버티고 있다.

한국의 에이스 김우진의 랭킹은 그보다 낮은 2위지만, 김우진은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엘리슨을 꺾고 사상 첫 남자 양궁 올림픽 3

관왕에 오른 바 있다.

한국 선수들은 대체로 큰 무대일수록 엘리슨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3명 모두가 고르게 톱클래스의 활 솜씨를 지닌 한국 대표팀은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시위를 당길 예정이라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한국이 탈락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강채영(현대모비스)·‘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이 팀을 이룬 한국 여자 대표팀은 4강전에서 대만에게 4-5(56-57 56-54 56-53 52-53 <27-28>)로 슛오프 끝에 패했다.

이날 예선에서 2070점을 쏜 세계신기록(종전 2018년 월드컵 2차 대회 2053점)을 경신한 한국 여자 대표팀은 16강에서 베트남에게 6-2(55-54 55-55 55-55 57-56), 8강에서 이탈리아에게 6-2(55-53 56-55 56-57 55-51) 승을 거두며 기세를 탔다.

그러나 4강전에서 대만의 슛오프 상황 10점·9점·8점을 쏘면서 8점·10점·10점을 쏘아낸 대만에 밀렸다.

한국 여자 대표팀 역시 10일 5·18민주광장에서 인도와 동메달을 놓고 맞붙는다.

예선에서 세계신기록(1393점)을 합작한 김우진과 안산은 혼성단체전 4강에서 독일을 5-3(38-38 37-37 38-38 40-36)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9일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단체전 4강에서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배민

16강에서 체코를 5-3(39-39 38-36 36-40 37-35), 8강에서 미국을 6-0(39-35 38-37 38-36)으로 제압한 뒤 4강전까지 승리했다.

혼성팀은 10일 스페인과 금메달 경쟁을 한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우진이 701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우석은 7위, 김제덕

은 11위에 자리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안산이 69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임시현과 강채영이 각각 3·4위를 기록했다. 여자 단체·혼성 단체전에도 출전한 안산은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첫 리커브 여자 3관왕에 오를 기회를 잡았으나, 여자 단체전 결승 진출 실패로 2

관왕에 도전하게 됐다.

세계선수권대회 리커브 3관왕은 2021년 양크턴 대회의 김우진이 유일하다.

남자 개인전 16강~결승은 11일, 여자 개인전 16강~결승은 12일 열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양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남 펜싱은 금 1·은 2·동 1개를 획득한 데 이어 권오민과 박소형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은 남자부 예매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대표팀에 승선한 권오민(왼쪽 4번째)과 해남군청 펜싱팀.

전남 펜싱, 김창환배 전국선수권서 ‘맹활약’

해남군청 권오민 남자 에페 ‘금메달’  
전남도청 박소형 에메달...국대 합류

전남 펜싱이 ‘제30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양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남 펜싱은 금 1·은 2·동 1개를 획득한 데 이어 권오민(해남군청)과 박소형(전남도청)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쾌거를 이뤘다.

먼저 권오민은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권오민은 16강에서 예동근(강원도펜싱협회)을, 8강에서 김도완(한국체대)을, 준결승에서 장호민(울산시청)을 15-1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안착했다.

그리고 황현일(울산시청)과 최민준(경상북도청)은 15-13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남자부 에페 최정상에 올랐다.

박소형도 같은 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 준결승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5-7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민지원(경기도청)에게 11-15로 석패하며 에메달 획득에 만족했다.

이로써 권오민과 박소형은 대표팀 선발 포인트

를 받아 2025-2026시즌 국가대표팀에 최종 승선,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게 됐다.

전남 펜싱은 단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청펜싱팀은박소형·김창환·김태희·선재희가 함께 출전한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은 한국체육대학교(45-37), 충북도청(45-31)을 연달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계룡시청과의 접전 끝에 42-45로 석패, 2위에 그쳤다.

이어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박다은·손정민·전수인·김은선(이상 전남도청)이 팀을 이뤄 출전, 값진 동메달을 추가하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활약을 위한 청신호를 밝혔다.

문영준 전남도펜싱협회장은 “전남 선수들이 전국 최정상급 선수들과 당당히 겨루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자랑스럽다”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국제대회는 물론 다가오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국가대표에까지 선발된 것은 전남 체육의 큰 자랑”이라며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새 아기호랑이는 누구...KBO 신인드래프트 개최

17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서...KIA, 2라운드 20순위 지명  
최대어는 우완투수 박준현... 양우진·김민준·신재인 등 주목

호랑이군단에 새로 합류할 신인 선수는 누가 될까.

KBO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6 KBO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는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은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이뤄진다. 순서는 2024시즌 구단 순위의 역순인 키움-NC-한화-롯데-SSG-KT-두산-LG-삼성-KIA의 순으로 실시된다. 다만 트레이드를 통해 NC는 한화와 SSG로부터 각각 받은 3·4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한다. 키움은 KIA로부터 받은 1·4라운드 지명권을 갖는다.

이에 KIA는 2라운드 20순위, 3라운드 30순위, 5~11라운드 지명을 할 예정이다. 전 구단이 모든 지명권을 행사할 경우 키움과 NC는 13명, 한화와 SSG는 10명, KIA는 9명, 이외 구단들은 11명의 선수를 지명하게 돼 총 110명의 선수가 KBO 리그 구단 유니폼을 입게 된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지명 대상자는 고교 졸업 예정자 930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1명, 엘리 드래프트 신청자 51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19명 등 총 1261명이다. 특히 이번 드래프트는 아마추어 유망주 집중 육성을 위해 KBO가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KBO Next-Level Training Camp’ 출신 선수들도 참가한다. 지난 2025 신인드래프트에서는 15명이 지명됐으며, 특히 1라운드에 3명이 지명된 바 있다.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는 북일고 우완투수 박준현이다. 그는 삼성과 NC에서 강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박석민 전 두산 코치의 아들이다. 고교 1학년 때부터 150km대 강속구를 뿌렸고, 고등학교 3학년인 올해는 최고구속이 157km까지 올랐다.

이외에 양우진(경기항공고·투수)과 김민준(대구고·투수), 신재인(유신고·내야수) 등이 상위 후보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는 야구팬들의 현장 관람도 가능하다. 입장권은 추첨을 통해 총 100명(50명 추첨·1인 2매)의 야구 팬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입장권은 당일 오후 12시부터 3층 크리스탈 볼룸 앞 안내데스크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박준현

행사는 KBO 공식 유튜브 채널인 ‘크브 라이브’에서 라이브 해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국내 고교야구 최고 전문가가 패널로 출연해 각 팀의 전략 및 선수를 야구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또 케이블 스포츠 채널 MBC 스포츠플러스(제작), SBS 스포츠, SPOTV, SPOTV2와 유튜브 플랫폼 TVING에서 생중계된다. KBSN SPORTS는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 생중계로 인해 녹화 중계할 방침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무안북중 핸드볼, 전국대회서 창단 첫 준우승

결승서 창원중앙중에 21-27 석패

무안북중학교 핸드볼부가 전국대회에서 창단 첫 준우승을 달성했다.

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무안북중 핸드볼팀은 최근 경북 김천에서 열린 ‘2025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등선수권대회’ 남자중등부에서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지난 대회 3위, 올해 제54회 전국소

년체전 3위에 이어 꾸준히 성장해온 결과로 전남 핸드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의미있는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안북중은 대회 조별 예선에서 2승 1패(증평중 26-11 승, 창원중앙중 19-21 패, 대전금빛중 23-22 승)로 본선에 올랐다. 이어 8강에서 진천중(25-21), 준결승에서 천안동중(23-21)를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도 무안북중은 창원중앙중과 팽팽한 승부를 펼쳤으나 후반에 주도권을 내주며 21-27

로 석패,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국대회 준우승은 무안북중 창단 이후 처음이다.

김태성 전남핸드볼협회장은 “이번 성과는 선수들의 투지와 팀워크가 만들어낸 결과로 무엇보다도 전남 핸드볼의 부활 신호탄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핸드볼을 즐기고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변 확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무안북중 핸드볼부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